

아세안 10개국과 미래 교통협력 방안 논의

- 22일 '제15차 한-아세안 교통장관회의'에서 교통협력 로드맵 수립 계획 발표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11월 22일 오전 9시(한국시간 오전 10시)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(Kuala Lumpur)에서 열리는 '제15차 한-아세안 교통장관회의'에 참석해 아세안 10개국과 교통협력 방안을 논의하고, 한국 기업의 해외 수주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.
 - 한-아세안 교통장관회의는 '09년 제주에서 개최된 한-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공동선언을 계기로 출범한 이래, 매년 한국과 아세안 10개국*이 모여 교통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력의 장이 되어왔다.
 - * 브루나이, 캄보디아, 인도네시아, 라오스, 말레이시아, 미얀마, 필리핀, 싱가포르, 태국, 베트남
- 올해 교통장관회의에서 박 장관은 공동의장인 말레이시아의 로크 시우 폭(Loke Siew Fook) 교통부 장관과 한-아세안 교통협력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고,
 - 앞으로 양측의 협력방안을 담아낼 '한-아세안 교통협력 로드맵*(2026-2030)'의 수립 계획을 아세안 회원국 교통분야 장관들과 공유한다.
 - * 對아세안 교통협력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, 아세안 회원국의 관심사업 중 우리기업 참여 및 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향후 5년간의 실행계획 등 제시
 - '아세안 대중교통 디지털격차 분석 연구' 등 한국형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협력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.
- 박 장관은 교통장관회의 기간(11.21~22)에 공동의장인 말레이시아 로크 시우 폭(Loke Siew Fook) 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, 폐낭국제공항 확장 사업, 폐낭 LRT 차량 사업 등에 대한 우리 기업 참여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해외건설 수주지원 활동을 전개한다.

- 말레이시아 알렌산더 난타 링기(Alexander Nanta Linggi) 공공사업부 장관과 한국의 고속도로 무정차 톨링 시스템(Hi-pass)을 활용한 다차로 하이패스(MLFF, Mult Lane Free Flow) 시스템 도입 등 양국 간 교통 분야 인프라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.
- 또한, 박 장관은 베트남 응우옌 두이 람(Nguyen Duy Lam) 교통부 차관과 만나 베트남 북남고속철 건설사업(하노이~호찌민) 등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는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국내 건설·교통기업 관계자들과 페트로나스 트윈타워*에서 간담회를 개최(11월 21일, 오전)하고, 현지에서의 성과와 애로사항을 청취한다.
 - * 한국의 건설기술로 지은 쿠알라룸푸르를 상징하는 초고층건물로 높이 451.9m(88층), 삼성물산 및 극동건설이 2번 타워 건설 참여, 1998년 완공
- 최근 삼성물산이 시공한 세계 2위의 마천루인 메르데카 118 빌딩*을 방문(11월 22일, 오후)하여 우리 건설 기술의 우수성에도 확인할 예정이다.
 - * UAE 부르즈 할리파에 이은 세계 2위(118층, 679m), 현재 시공 완료되어 준공승인 前
-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-아세안 교통장관회의 개최사에서 “지난 10월 라오스에서 개최된 한-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최고 단계 파트너십인 ‘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*’를 수립함에 따라 양측의 교통분야 협력관계가 한층 더 도약할 것”이라면서,
 - *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(CSP) : 아세안이 대화상대국과 수립하는 최고 단계 파트너십
- “국토교통부는 새로운 모빌리티 정책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아세안 회원국이 더욱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힐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기획조정실 국제협력통상담당관	책임자	과 장	공경화 (044-201-4563)
		담당자	사무관	이정훈 (044-201-3306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